

2022년 도 제 11 차

금 융 통 화 위 원 회 (정 기) 의 사 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2년 6월 9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6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6월)」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보고서의 체계, 목차 등을 유지하되, 최근 정책여건 변화와 정책수행 상황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하였음. 특히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방압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고 있는 만큼 금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논거를 충실히 설명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부문에서 글로벌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고, 국내 물가 전망경로 기술시 상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음. 한편, 그간 수록되었던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시장안정화조치가 대부분 종료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 보고서부터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향후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 요인으로 추경효과를 추가하여 서술하고, 우리 경제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6월 2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권 수신 동향 평가에서 수신상품의 만기별 구조 및 원가, 유동성 규제 등의 영향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덧붙여 일부 위원들은 과거 금리인상기보다 수신 만기가 단기화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융상황지수 관련 서술시 최근 동 지수가 완화적이긴 하지만 중립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완화정도가 상당폭 축소되었다는 표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단정적인 평가를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이 특정 시기에 크게 변동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 일부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장기간 흑자 기조 지속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독자들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모형추정 등에서 참고한 문헌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6월)」(안) (생략)